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보건산업진흥원, 미국 환자 유치 위한 의료보험상품 개발

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 최대 의료보험사인 United Health International(UHI)의 고위 임원이 미국 환자 유치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전함.

- 이는 지난 7월 14일 미국 홍보 행사에서 이뤄진 진흥원과 UHI간 미국 환자 유치 의료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의향서(LOI) 체결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임.
- UHI는 1995년 설립된 UHG* 자회사로 중국, 인도, 필리핀, 포르투갈 등에서 해외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, 다국적 및 미국 기업, 정부기관, 해외보험사, 여행사, 재보험사와 다각화된 국제 건강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.

* United Health Group(UHG)은 미국 1위의 의료보험회사로 가입자 수가 7천만 명에 달하며, 2008년 수익규모는 810억 달러(104조원)에 달하는 초대형 그룹임.

□ UHI 관계자는 이번 방한을 통해 UHI의 Medical Tourism Plan 개발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한국의 주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방문함으로써 한국의료기관의 준비상황 및 인프라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힘.

- 주요 협의 내용으로는 보험적용대상, 보험적용시술, 법적 이슈, 진료비 청구 프로세스, 환자 관리방안 등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주요 이슈들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.
- 업무협약에 이어 UHI 요청에 따라 세브란스 병원, 서울아산병원, 우리들병원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각 기관의 의료의 질관리, 분쟁 해결방안, 치료 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.
- 또한 이들 의료기관의 관리수준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의 원내 이동 경로를 따라 병원을 둘러볼 계획이라고 덧붙임.

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UHI의 의료보험가입자들이 한국내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제의료상품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, 지속적이고 안정된 유치채널을 통해 미국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보험상품 개발 업무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함.

(미국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보험 상품 개발 가속화,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과, 10/7)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캐나다,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상품 마케팅 금지

□ 캐나다 재무부는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상품 마케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으며, 이에 대해 은행산업은 즉각 반발함.

- 캐나다는 은행의 보험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나 1990년대부터 은행지점을 통한 보험상품 마케팅을 제한하는 등 은행영업과 보험영업이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것을 금지해왔고 이러한 정책이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상품 마케팅에도 영향을 미침.
- 최근 캐나다 대형은행들은 보험사업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몬트리올 은행(Bank of Montreal)은 지난해 캐나다 AIG보험을 인수한 바 있음.
- 또한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은행들이 점차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은행산업은 당혹스러워함.
- 캐나다의 대형은행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, 소비자의 금융상품 정보접근을 어렵게 하고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즉각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냄.

□ 재무부의 이번 결정은 보험사업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은행을 견제하려는 보험중개사들의 로비를 통해 이루어짐.

- 5년마다 개정이 이루어지는 캐나다의 은행법은 지난 2006년에 마지막 개정이 있었으며, 이때 은행산업은 은행지점을 통한 보험상품 마케팅 규제를 없애기 위해 로비를 벌였으나 실패함.
- 그 후 은행들은 규제를 피해 은행지점 바로 옆에 보험사무소를 개설하고 같은 출입문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하는 보험영업을 해왔으며 이러한 전략은 보험중개사들의 반발을 샀.
- 이에 보험중개사들은 은행의 홈페이지도 지점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상품 마케팅을 금지하도록 정치권을 설득하였고 결국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임.

(Globe and Mail, 10/8)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영국계 네덜란드 보험사, 정부 구제금융 출구 요청

- 영국 Aviva의 계열사인 Delta Lloyd 보험사는 네덜란드 정부가 1년 전 금융위기 시 단행한 구제금융에 대해 출구전략을 검토하여 보험사간의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함.
 - Delta Lloyd는 그간 네덜란드 정부의 금융위기 대응은 적절한 조치였음을 인정하지만 현재 구제금융의 도움으로 매력적인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보험사와 계속 경쟁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쟁이 조속히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밝힘.
 - 이와 같은 Delta Lloyd의 주장에는 몇몇 네덜란드의 보험사들도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짐.
- Delta Lloyd의 CEO인 Niek Hoek는 또한 수년 동안 몇몇 금융 그룹들이 국유화된 상태로 운영되는 것 역시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함.
 - 이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는 현재 ABN Amro와 Fortis Bank Nederland를 국유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출구전략을 갖고 있다고 밝힘.
 - 그러나 두 은행계 그룹간의 성공적인 합병을 성사시킨 이후 2011년 정도에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은 합병이 난항을 보임에 따라 연기되고 있는 상황임.
- Aegon, ING 등 몇몇 보험그룹 등은 그들에게 주어진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구제금융금의 조속한 상환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짐.
 - Aegon은 뒤늦게 깨달은 것이지만 1년 전 30억유로의 지원 없이도 금융위기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조기 상환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밝힘.
 - ING 역시 조기 상환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ING가 구제금융 지원금을 향후 2년 안에 조기상환할 경우 50%의 위약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 조기상환에는 선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.

(Financial Times 10/8)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미츠이스미토모해상 등 3사, 지주회사로 통합계획 발표

□ 일본의 주요 손해보험회사인 미츠이스미토모해상홀딩스(업계 2위), IO손보(업계 4위), 닛세이도와손보(업계 6위) 등 3사는 내년으로 예정된 최종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최근 발표함.

- 통합으로 탄생할 새 지주회사의 이름은 3사의 머릿글자를 조합하여 MS&AD보험 그룹홀딩스(MS&AD Insurance Group Holdings Inc.)로 하며, 현 미츠이스미토모해상 사장이 초대 대표이사를 맡게 됨.
- 통합형태는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이 주도해 만든 지주회사 산하에 IO손보와 닛세이도와손보가 주식교환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하며, 주식교환 비율은 미츠이스미토모해상 : IO손보 : 닛세이도와손보 = 1 : 0.190 : 0.191로 최종 합의함.
- 통합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2013년에 총수입보험료 및 이익 규모가 각각 약 2조 7천억엔, 1,500억엔으로 업계 최대보험회사(세계 7위 수준)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, 매년 약 400억엔(2008년 대비)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통합 3사 사업 포트폴리오 (단위 : 십억엔)

항 목	FY2008	FY2009(추정치)	FY2013(목표치)
통합 3사 전체 이익	-27.1	41.0(100%)	150.0(100%)
- 일본 내 손보사업 이익	7.6	26.6(65%)	100.0(67%)
- 일본 내 생보사업 이익	-3.6	1.5(4%)	15.0(10%)
- 해외사업 이익	-28.6	12.0(29%)	30.0(20%)
- 재무 및 리스크 관련 서비스사업 이익	-2.4	0.9(2%)	5.0(3%)

자료 : AM Best Week(2009.10.9)

□ 3사는 예정된 합병일정을 늦추면서까지 공동 상품개발 및 업무 시스템 일원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함.

- IO손보와 닛세이도와손보 양 사는 당초 새로운 지주회사가 생기는 2010년 4월에 합병하기로 했으나, 통합상품 및 업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최종 합병일자를 2010년 10월 1일로 연기함.
- 한편, 3사는 2014년 4월 최종 시스템 통합까지 약 700억엔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,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함.

(마이니치신문, 9/30 · 후지산케이신문, 10/1 · AM Best Week, 10/9)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보감회, 개정 보험회사관리규정 시행

□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(이하 보감회)는 보험산업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<보험회사관리규정>을 개정하고 신보험법 발효에 맞추어 본격적으로 시행함.

- 보험회사 및 지점 설립, 경영 관련 규범, 보험산업 관리감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보험회사관리규정은 첫 시행된 2000년 이후 2002년, 200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개정임.
- 최근 개정 보험법 발효와 함께 시행된 이번 규정과 관련해 보감회 당국자는 개정 보험법이 표방한 원칙들을 더욱 구체화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보험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힘.

□ 개정된 규정은 보험회사 및 영업지점 설립요건을 강화하여 시장진입 문턱을 높이고, 보험회사의 내부관리시스템 구축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임.

- 이번 규정에서는 최근 보험회사의 영업지점 설립이 크게 활성화(현재 중국에는 약 4만 여 개의 영업지점이 등록)되어 감독기관의 통제력에 한계가 보이자 업계에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되, 이전보다 강화된 내부관리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음.
- 개정 규정에 따르면, 보험회사 설립을 희망하는 주주는 최근 3년간 중대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고, 최소 2억 위안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는 등 법률, 행정법규 및 보감회 규정 모두를 준수해야 함.
- 영업지점 설립의 경우, 이전에는 전년도에만 지급준비금이 충분하면 지점 설립이 가능했지만, 이번 규정에서는 이 외에도 직전 2분기 연속으로 규정에 명시된 지급준비금 이상이 있어야 설립할 수 있도록 함.
- 또한 보험회사는 영업지점 관리에 있어서 일정 이상의 인원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,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정직원 신분으로 의무화 하는 등 내부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항들이 다수 신설됨.
- 이 밖에도 보험가입자,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회사의 준법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층 까다로운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음.

(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 · 중국증권보, 9/28)

【 국내외 금융시장 주요 지표 】

◆ 국내 주요 경제지표

국내 지표		08년 말	09.10.1(목)	09.10.8(목)	전주대비
금리	CD금리(91일)	3.93	2.76	2.80	0.04
	국고채(3년)	3.41	4.36	4.47	0.11
	회사채(3년, AA-)	7.72	5.51	5.61	0.10
환율	원/달러	1,257.50	1,175.20	1,168.40	-6.80
	원/엔(100엔)	1,384.91	1,312.12	1,319.18	7.06
	원/유로	1,759.49	1,716.73	1,726.14	9.41
	원/위안	184.30	172.15	171.16	-0.99
주가	KOSPI	1,124.47	1,644.63	1,615.46	-1.8%
	KOSDAQ	332.05	502.55	496.96	-1.1%
	KOSPI 보험지수	14,168.88	19,848.51	19,868.41	0.1%

* KOSPI 보험지수는 1980년 1월 4일을 100p로 하는 시가총액식으로 산출되며, KOSPI에 상장되어 있는 11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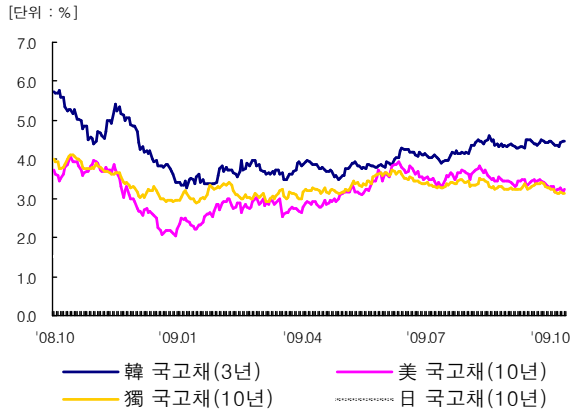
◆ 해외 주요 경제지표

해외 지표		08년 말	09.10.1(목)	09.10.8(목)	전주대비
금리	LIBOR(3개월, \$)	1.43	0.28	0.28	0.00
	미국 국고채(10년)	2.21	3.18	3.25	0.07
	독일 국고채(10년)	2.95	3.16	3.12	-0.04
	일본 국고채(10년)	1.17	1.30	1.27	-0.03
환율	엔/달러	90.80	89.57	88.57	-1.00
	달러/유로	1.3992	1.4608	1.4773	0.0165
	위안/달러	6.8230	6.8265	6.8264	-0.0001
주가	미국 DowJones	8,776.39	9,509.28	9,786.87	2.9%
	미국 Nasdaq	1,577.03	2,057.48	2,123.93	3.2%
	영국 FTSE100	4,434.17	5,047.81	5,154.64	2.1%
	독일 DAX30	4,810.20	5,554.55	5,716.54	2.9%
	프랑스 CAC40	3,217.97	3,720.77	3,806.81	2.3%
	일본 Nikkei225	8,859.56	9,978.64	9,832.47	-1.5%
	중국 상해종합	1,820.80	2,780.43	2,785.43	0.2%
	대만 가권	4,591.22	7,545.29	7,503.31	-0.6%
	홍콩 항셱	14,387.48	20,955.25	21,492.90	2.6%
	DowJones 보험지수	154.83	175.64	182.43	3.9%
실물 지표	두바이유	37.02	68.65	67.81	-1.2%
	금(NYMEX)	882.05	999.20	1055.10	5.6%

* DowJones 보험지수(DJTINN) 1991년 12월 31일을 100p로 하는 유통주식수 조정 시가총액식으로 산출되며,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글로벌 보험사 중 상위 30개사를 대상으로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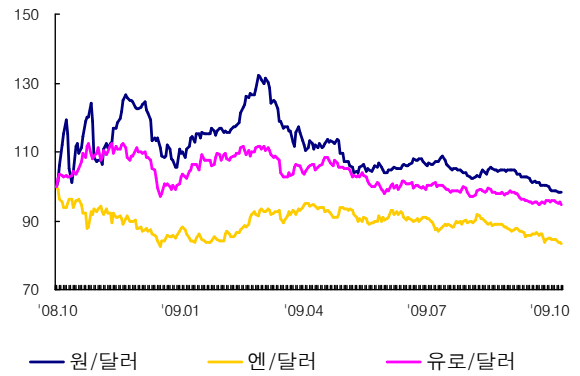
◆ 주요 지표 비교차트

<그림 1> 주요국 이자율 추이



자료 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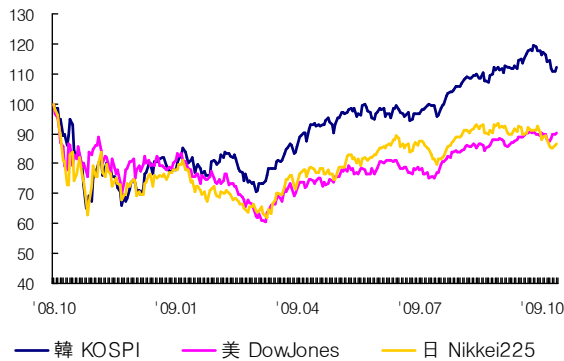
<그림 2> 주요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 추이



주 : 2008년 9월말 환율을 100으로 계산한 지수임.

자료 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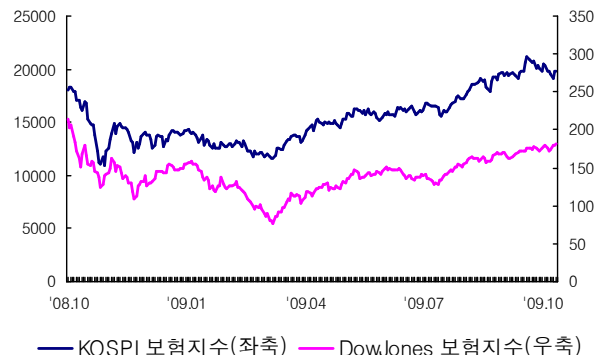
<그림 3> 주요국 주가지수 추이



주 : 2008년 9월말 주가지수를 100으로 계산한 지수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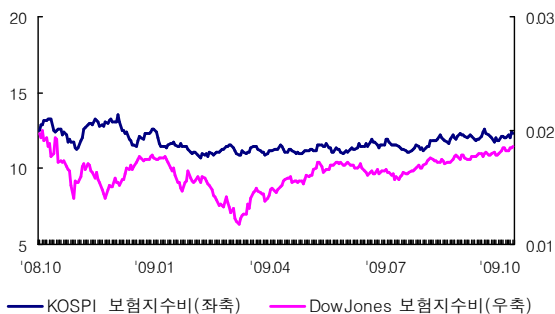
자료 : 증권선물거래소, Bloomberg

<그림 4> 한국, 미국 보험지수 추이



자료 : 증권선물거래소, Bloomberg

<그림 5> 한국, 미국 보험지수비 추이



주 : 보험지수비=보험지수/전체지수로 계산함.

자료 : 증권선물거래소, Bloomberg

<그림 6> 국제유가, 금 가격 추이



자료 : Bloomberg